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사이버대학교
교육부 인증 평가
3회 연속 A등급
2007 2013 2020

SEOUL
CYBER UNIVERSITY

국내 최초 3회 연속 최우수·A등급 획득
사이버대학교 역시,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사이버대(총장 이은주)는 교육부와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020년 원격대학 인증·역량진단’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2007년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2013년 사이버대학 수준평가 A등급 대학에 이어 이번 A등급으로 교육부 공인 3회 연속 A등급을 받은 최초의 사이버대학이 됐다. 2000년 국내 최초로 사이버대학 인가를 받아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의 시초가 된 서울사이버대는 이후 모바일 강의 서비스를 사이버대학 최초로 도입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교육 시스템을 확립하는 등 미래형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의 온라인 교육 커리큘럼은 정평

이 나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중남미 엘살바도르의 대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이(e)러닝 역량강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원격교육이 본격화된 지난해 서울사이버대는 서울시 및 인천시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돼 우수한 프로그램 노하우를 인정받았다. 주요 오프라인 대학들은 서울사이버대를 벤치마킹 하면서 동시에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외와 방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언택트 시대, 대한민국 교육의 뉴노멀’이라는 주제로 정부 학계 재계 관계자들이 개최한 ‘2020 미래사회 교육 콘퍼런스’에서는 미래의 교육 비전과 관련해 오프라인 대학으로부터 미래 대학의 롤모델로 소개됐다.

중앙일보 2월 1일자 보도 내용

미래를 이끄는 온라인 교육 선두주자

사이버대학 최초 교육부 공인 3회 연속 A등급 획득

서울사이버대학교가 2020년 교육부 원격대학 역량진단 평가에서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2007년 원격대학 종합평가 최우수 대학, 2013년 사이버대학 수준평가 A등급 대학에 이어 지난해까지, 교육부 공식 평가 3회 연속 A등급 획득은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다. 그동안 탄탄하게 다져온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본교는 사이버대학의 기준이자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강인 신임 총장



문화예술대학 피아노과 신지연 교수(왼쪽)와 박혜현 교수(오른쪽)



21대 총학생회장 강재석 학우와 수석부회장 이귀숙 학우

CONTENTS

SCU e야기 Vol. 46

Special Theme 04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의 씨앗을 심다

SCU Story

06 핫이슈

총장 이취임식
온라인 입학식, 졸업식 개최 외

18 반갑습니다

신임 교수 소개

20 명사 인터뷰

국제백신연구소 안 워텔 사무차장

22 교수 칼럼

심리적 소진과 자기 돌봄

24 SCU 피플

21대 총학생회장 강재석 학우,
수석부회장 이귀숙 학우
세무회계학과 이상훈 학우

28 대학원 소식

휴먼서비스대학원 김형갑 원우
상담심리대학원 이계선 원우 외

32 SCU 라운지

김환기 <우주>

SCU Inside

34 SCU 특강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 특강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

36 2021 Start Up

신년 교직원 표창 수여

37 SCU 소식

박정자 명예박사 학위수여식
성악과, '우리들의 노래' 음악회
장은미 작가 온라인 특강 외

44 교수 등정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의 씨앗을 심다

해가 바뀌어도 우리는 아직 코로나19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코로나19가 덮친 세상은 서로 거리를 두라고 말한다. ‘비대면’의 강조는 언택트 시대의 문을 열게 했다. 우리를 무한한 가능성의 온라인 세상으로 이끈 코로나19는 새 시대의 도래와 편리함이라는 빛과 함께 그 반대편에 더 큰 고통과 아픔의 그림자를 남겼다. ‘단절’과 ‘격리’는 심리적 고통을 불러왔고, 많은 이가 겪어본 적 없는 빠른 사회적 변화와 혼란에 ‘길’을 잃었다. 우리가 서로 거리를 두는 동안 끈끈한 유대와 관계는 단절됐고, 공동체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게 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
가 손을 내밀며 거리를 좁힌다. ‘심리적 거리’ 좁히기는 본교만의 독보적인 온라
인 교육 노하우와 인프라에서 비롯된다. ‘온라인 특강’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표지판이 되어주고, ‘심리상담’은 지친 마음을 따
스한 손길로 어루만지며, ‘예술’로 메마른 사회를 촉촉이 적셔 위로를 건넨다. 사회
공헌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교육기관의 표상, 서울사이버대학교가 더불어 사는
삶과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전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A동 (본관)



서울사이버대학교 한옥 「구리당」



신일 러닝&액티비티 센터 (본교 심리상담센터)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강인 신임 총장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이취임식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2월 22일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제9대 이은주 총장 이임식과 제10대 강인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총장 이·취임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한된 인원만 참석하여 열렸다. 이·취임식에서는 이상균 이사장의 공로패 및 임명장 수여와 이세웅 명예이사장의 격려사 등이 진행됐다. 이은주 전임 총장은 미국 텍사스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본교 교무처장, 입학처장, 부총장 등을 거쳐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제9대 총장을 맡았다.



신일학원 이상균 이사장과 이은주 전임 총장(위)



제10대 강인 총장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강인 신임 총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화여대인간환경연구소 연구원, 이화여대 BK21 인문사회 분야 박사후 연구원을 지냈다. 최근 세계대학총장협회(IAUP) 이사로 선임된 신임 강인 총장은 2004년부터 노인복지전공 교수로 본교에 부임한 후 입학처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부총장과 제7대 총장을 역임했다.

**‘2020-2021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에서
한러문화예술협회 이상균 회장(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이
푸쉬킨 메달을 받았다.**

3월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러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과 러시아 외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 행사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미하일 슈비트코이 국제문화협력부문 러시아 대통령 특별대표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균 회장은 그동안 한러 문화예술 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라브로프 장관을 통해 푸쉬킨 메달을 받았다. 푸쉬킨 메달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 증진에 특별히 기여한 한국인을 선정해 러시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문화훈장이다. 이날 개막식에서 정의용 장관은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인적교류가 한-러사업으로 인해 양국 국민의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있다”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가 교류를 시작해 수십 년 동안 양국을 가르고 있었던 냉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됐다”라며,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노력해 양국 국민 상호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 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작년부터 올해까지 2개년을 ‘상호교류의 해’로 지정, 문화·예술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1990년 수교 이후, 1992년 문화협정을 맺고 냉전 시기 동안 단절됐던 양국의 국민적 이해와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 이어 2019년 ‘한러 상호교류의 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발히 하고 기관 간 협력을 장려해 양국의 문화적 대화와 교류를 향상하기로 했다. ‘한러 상호교류의 해’는 ‘우정과 신뢰로 함께 빛나는 미래’를 공식 슬로건으로, △포괄적 쌍방향 교류 △차세대 문화교류 △국민이 함께하는 문화교류 등 3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국내와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류사업이 추진된다. 올해에는 ‘러시안 시즌’을 한국에서 개최해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을 소개하고, 매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왼쪽)과
이상균 이사장(오른쪽)

규모 국제문화행사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문화포럼’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여한다.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통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우호를 다지며,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전시켜 양국 문화 관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엘살바도르에 온라인 교육 인프라 구축



UTECCO-KOICA 멀티미디어 촬영실과
멀티미디어 디자인 제작실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이러닝 역량강화 사업

서울사이버대학교와 개발협력기관 코이카 (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중남미 국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에 위치한 엘살바도르기술대학 (UTEC)에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위한 멀티미디어 스튜디오와 강의실을 기증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4일에는 이초희 주 엘살바도르 영사, 리카르도 카르도나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기증식이 개최됐다.

본교는 코이카와 함께 2018년부터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이러닝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엘살바도르 기술대학과 엘살바도르국립대학 (UES)에 이러닝 기술을 전수해왔다. 이 사업은 민간협력사업으로 △교직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역량강화 연수 △신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이러닝 콘텐츠용 기자재 확충 △기관 이러닝 정책 역량강화 컨설팅 등 세부 활동으로 진행됐다.

엘살바도르는 오랜 기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산업이 피폐해지고 계층 간 불평등 심화 현상을 겪고 있다. 2019년 인간개발지수 (HDI)는 전 세계 124위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평균 교육 기간은 3년 연속 6.9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엘살바도르에서는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여 숙련된 노동력과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러닝을 국가 주요 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자국의 이러닝 역량과 경험, 기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한국에 협력을 요청했고, 이에 본교와 코이카가 협력해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이러닝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구축된 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현지 관계자들



(왼쪽부터) 기증식에 참석한 최연주 통역사, 리카르도 카르도나 교육부 차관, 이초희 주 엘살바도르 대사관 영사, 윤지현 KOICA 엘살바도르 사무소장, UTEC 벨슨 사라테 총장, UTEC 블랑카 루스 오란테스 국제협력처장

엘살바도르기술대학에 이러닝 환경 구축

본교는 엘살바도르기술대학에 이러닝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3개와 관련 기자재, 노트북, 책상 등 교육용 인프라를 갖춘 강의실 ‘멀티미디어룸’을 구축했다. 이 시설은 Full HD 카메라, 3D VR을 위한 전신 크로마 벽체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스펙을 갖춘 본교의 대형 스튜디오를 벤치마킹했다. 이번에 구축한 멀티미디어 스튜디오 및 강의실은 대학과 약정을 체결해 향후 엘살바도르국립대학 등 타 교육기관도 사용할 수 있는 공용시설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추후 엘살바도르의 온라인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지역 및 계층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엘살바도르기술대학 벨슨 사라테 총장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교육모형을 통해 이러닝 교육의 기술, 역량 개발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과 교육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게 됐다”라며 향후 양교 간 지속적인 협력에 기대를 나타냈다. 리

카르도 가르도나 교육부 차관은 “전 세계 많은 국가 중 교육에 투자한 국가만이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속 성장을 이뤄냈다. 이번 시설 개소가 미래 세대 양성에 첫 시작이 될 것”이라며 본교의 협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본교 이은주 전임 총장은 “이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과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양국을 오가며 양질의 온라인 교육과 상호교류를 위해 열정적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며, “개소식 행사에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은 아쉽지만 영상으로 인사를 전하는 것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 구축된 영상촬영실, 멀티미디어실, 교육장은 엘살바도르의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본교는 앞으로도 엘살바도르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2021학년도 입학식 및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온라인 개최

온라인 입학식·학위수여식 동영상 : YouTube 서울사이버대학교 채널



1 우리나라 최고의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는 2월 27일 2021학년도 온라인 입학식을 개최했다.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진행된 이번 입학식은 최대 실시간 시청자 수 991명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21학년도에는 약 1만 5,000여 명의 재학생이 본교에서 미래를 그려나갈 예정이다. 본교 강인 총장은 “온라인 고등교육의 선두 주자인 본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한다”라며,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의 동반자, 더욱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나가는 데 본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2월 20일에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에는 학사 1,764명, 석사 31명 등 총 1,795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우수학위자들에게는 이사장상, 총장상, 공로상, 봉사상 등 다수의 상이 수여됐다.



2

국방융합관리전공은 군자산 관리, 인적 관리, IT를 리드하는 군 작전 임무 현장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3

노인복지를 공부하는 것은 나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 그리고 우리 후손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4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상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5

잘 이겨내어 오늘 값진 졸업장을 받은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1. 환영사를 전하는 강인 총장
2. 군경상담학과 이정원 교수
3. 노인복지전공 박기훈 교수
4. 청소년복지전공 김윤나 교수
5. 노인복지전공 권금주 교수

러시아와 함께하는 국제 온라인 성악 콩쿠르

RUSSIA-KOREA SCU Online Voice Competition



SEOUL CYBER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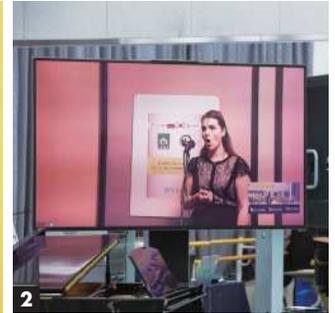
ASSOCIATION OF TCHAIKOVSKY
COMPETITION STARS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본선 진출자 서미영, 하석천, 이종건, 한승화, 박종신, 서정근, 심사위원 이승현 교수, 이규도 석좌교수,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장



1



2



3

1. 열창 중인 이종건 씨

2. 화상을 통해 본선 무대를 선보인 러시아 참가자 다리아 루사코바

3. 현장 및 화상 무대를 심사 중인 한국 심사위원들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와 러시아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수상자 협회가 공동으로 ‘러시아와 함께하는 국제 온라인 성악 콩쿠르’를 개최했다. 이번 콩쿠르를 위해 한국과 러시아 양국에서 각각 지난해 12월 5일 예선을 진행했으며, 각국에서 6명씩 총 12명의 본선 진출자가 3월 13일 본교에서 열린 본선 무대에 올라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였다.

본선 무대는 한국과 러시아를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해 양국 성악가들의 연주를 온라인 생중계했으며, 현장 및 화상 무대를 본교 성악과의 이규도 석좌교수와 이승현 교수,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장, 올레그 쿨코 교수, 소프라노 마리나 라피나, 메조소프라노 나탈리아 에라스바 등 6명의 심사위원이 양국에서 동시에 심사했다. 최고의 무대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위해 디스클라비어를 이용한 고품질 음향시스템이 동원됐고, 러시아 현지에도 마이크를 설치해 참가자들의 연주를 실

시간으로 전달했다.

본선에서는 한국의 이종건 씨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해 1,000 달러의 상금과 상장을 받았다. 이밖에 1위는 러시아의 비올레타 파블로바, 2위는 하석천 씨와 발레리아 밀니코바, 3위는 서영미 씨와 엘레나 이바노바가 각각 차지했다.

본교 강인 총장은 “이번 국제 온라인 성악 콩쿠르를 통해 재능 있는 인재들이 기량을 뽐내는 무대를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본교는 독보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실력 있는 성악가들을 발굴하고 성악 콩쿠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본선 무대에서 심사를 맡은 박수길 전 국립오페라단장은 “참가자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노력,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무대였다”라며, “이번 콩쿠르를 계기로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온라인 성악 콩쿠르의 개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2021학년도 신설 학과 및 전공

미래 맞춤형 온라인 교육의 선두주자 서울사이버대학교가 급변하는 사회적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4개 학과 및 전공을 신설했다. 가장 앞선 온라인 교육 시스템 속에서 미래 인재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신설 학과 및 전공을 살펴본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안전전문인력
안전관리전공

safety.iscu.ac.kr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안전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산업활동 중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제거하고 예방·관리하는 모든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한다. 산업보건학 및 공학의 기초를 이해하고 특히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분야에서의 위험성 평가, 관련 법규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융합 인재
로봇융합전공

robot.iscu.ac.kr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융합 지식을 습득해 로봇 개발 및 운용 전문가를 배출하고, 미래 로봇산업을 선도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 IT 융합 산업에 활용되는 현장 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로봇융합기술은 진로가 로봇 분야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응용 기술 개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비대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의적' 크리에이터
1인방송전공

1in.iscu.ac.kr

비대면 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는 요즘, 유튜브 방송 제작 기술 습득은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다. 모든 분야의 콘텐츠를 온라인화, 영상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문화, 영상, 방송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통해 각자의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무 위주의 실천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K-뷰티'를 선도할
감각적인 뷰티 전문가
뷰티디자인학과

beauty.iscu.ac.kr

삶의 질과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21세기 미(Beauty)의 트렌드를 선도할 뷰티·에스테틱 전문가 양성에 앞장선다. 헤어, 네일, 메이크업, 방송분장 등 뷰티디자인의 기본 이론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스마트뷰티케어 콘텐츠 교육, 한류 뷰티지도자 양성을 위한 K뷰티건강글로벌 콘텐츠 교육으로 다가올 초융합시대의 글로벌한 전문 예술인력을 육성한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 **마음치유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 방역

02-944-5020

cec.iscu.ac.kr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를 전하다**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 등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무료 전화상담 서비스 ‘마음치유콜’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음치유콜은 전화기만 있다면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무료로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개별 상담자 배정을 통한 정기적인 상담으로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무료 전문상담은 본교가 국민과 함께 하는 대학이기에 가능하다. 본교 심리상담대학은 전국 최고 수준의 상담심리교육 커리큘럼을 갖추고 심리상담 전문가를 양성한다. 또한 서울, 분당, 인천, 대구, 광주 등 5곳에 위치한 본교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온·오프라인 대학 중 가장 탄탄한 실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각 지역 심리상담센터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심리상담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의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실습 및 수련기관으로도 활용되어 전문 심리상담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본교는 국민의 심신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코로나 시대 대국민 심신안정을 위한 케어방안’ 포럼을 열었다. 이 포럼은 코로나 시대에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국민의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은 자리였다.



문화예술대학 피아노과 신지연 교수(왼쪽)와 박혜현 교수(오른쪽)

서울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대학의 예술로 어둠을 밝히다

메마른 사회를 촉촉이 적시는 예술교류

부쩍 뜸해진 예술교류 및 공연으로 인해 국민의 문화생활이 제약받는 가운데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예술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꾸준히 예술활동과 관련 특강을 열고 메마른 사회를 촉촉이 적시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본교 피아노과 교수 음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경숙 석좌교수, 나정혜 교수, 윤소영 교수, 신지연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동료 교수가 뛰어난 연주력과 폭넓은 레퍼토리로 고품격 공연을 선보였다. 이경숙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지친 이 시기에 음악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문화예술대학 실용음악과 김영우 특임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온라인 무료 특강으로 많은
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보컬 그룹 ‘스윗소로우’의 멤버이자 본교 실용음악과 특임교수인 김영우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중음악’ 특강을 열었다. 이 특강은 코로나19로 여러 사람이 모여 듣는 강의가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타 대학 재학생은 물론 대중음악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시대 변화에 따른 대중음악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했다. 본교는 다방면의 전문가 특강을 무료로 개설, 일반인들이 수강료에 대한 부담이 없이 수강하도록 하여 많은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신임 교수님, 반갑습니다!

2021년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새롭게 부임한 신임 교수들이 인사말을 전한다. 학과와 전공 분야는 저마다 달라도 바라보는 방향은 같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이 바로 그것이다. 학생과 함께 성장하며 학과의 발전, 나아가 학교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신임 교수들의 새 출발 메시지를 들어보자.



웹·문예창작학과

김준현 교수

변화하는 창작 방법을 익힐 때

문학은 이제 종이 대신 웹을 통해 창작되고, 또 읽힌다. 따라서 새로운 매체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문학의 경향, 창작 방법을 연구하고 익힐 때다. 이런 환경 변화에 맞는 문예창작 담론을 제시하고 또 실천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미 충실한 웹 인프라를 가진 본교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한다.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학교와 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천지영 교수

온라인을 통해 학생을 만나는 설렘

4년 전 본교와 첫 인연을 맺고 이산수학 수업을 촬영했을 때 느꼈던 긴장과 설렘이 아직 선명하다. 얼마 전까지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올해부터 본교에 전념해 온라인을 통한 더 많은 수업으로 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또 다른 설렘을 느낀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 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기초 이론 과목부터 실제적인 기술 습득을 위한 실습까지 다양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기계제어공학과

강성훈 교수

공학 공부도 쉽고 재밌을 수 있다

철학이 어려운 학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철학책도 어려워야 할 이유는 아니라는 말이 있다. 공학도 마찬가지다. 공대 교재는 한 장 한 장이 벽돌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기존 공부방법이 암벽등반이라면, 등산처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기계제어공학과는 이제 첫걸음을 뗐다. 학생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서로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기계제어공학과를 만들어 보겠다.



Anh T. Wartel

(국제백신연구소 안 워텔 사무차장)



글로벌 보건 증진에 앞장서는 국제백신연구소의 Anh T. Wartel(안 워텔) 사무차장을 만나다

Q. 한국에 체류하신지 얼마나 됐나요? 또,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가족과 함께 있는데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상적인 건 잘 정비된 공공서비스와 인터넷 연결이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높은 대응 수준에도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과거 메르스 확산에 대응하면서 효과적으로 진단과 추적,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체계를 갖춘 것과 관련 깊다고 생각합니다.

Q. 국제백신연구소 (IVI)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의사이자 임상연구원으로 공중보건 교육을 받았고 지난 20년간 백신 개발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프랑스 국립 HIV/AIDS 연구기관 (ANRS) 연구원을 시작으로 제약회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저개발국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면서 저렴한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명에 감명받아 IVI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Q. IVI는 글로벌 보건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나요?

IVI는 지난 20여 년간 쉼 없이 백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 백신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저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IVI의 백신 개발 분야가 늘어나고 치쿤구니아 및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로 다양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들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의 사용승인과 세계보건기구 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확산으로 유엔 등 국제기구는 취약성 높은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IVI는 집단적으로 글로벌 보건 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 협력국의 공조 촉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저희 연구소는 유엔개발계획 (UNDP)이 주도해 1997년에 설립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설립협정에 서명한 국제기구는 세계보건기구 (WHO) 등 36개국입니다. IVI는 국가와 연구기관, 학계, 자선기관, 후원자 등의 파트너와 협력을 증진해 세계 보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협력과 공조를 통한 극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Q. 한국은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에 주요한 자원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는 데 있어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KOICA와 같은 원조기관이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국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세계 보건을 위한 한국 정부의 헌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초기 코로나19 확산 대응의 모델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 글로벌 보건 분야의 모델로서 특히 개도국을 포함해 글로벌 공공재를 보호하는 데 지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본교에는 1만 5,000여 명의 성인 학습자 학생이 있는데 사회복지나 개도국 대상 해외봉사에도 관심이 많 습니다.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젊은 과학자나 학생들이 열정과 에너지, 의지를 갖고 지속해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에 시간과 정성을 쏟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감과 목적성을 찾을 수 있으며 자존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심리·상담대학
상담심리학과
김현아 교수

심리적 소진과 자기 돌봄

당신의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해서
외부 세상의 분주함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라.



소진현상, 그 원인과 결과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덴베르거는 소진 (Burnout) 현상을 ‘과도한 요구에 의해 에너지, 힘 또는 자원을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지치게 하는 것, 고갈되어 버린 것,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기대했던 성과나 보상이 없어 인간적 회의감이나 좌절감을 겪는 상태’라고 정의했다.

소진현상을 겪는 사람은 쉽게 피곤해하고 식욕부진 또는 감정적 섭식, 무기력감 등을 호소하며,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족에게 짜증 내며 풀거나 고객에게 냉담하게 대응하기 쉽다. 소진의 원인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사명감, 헌신을 강조하는 수직적 의사소통과 같은 조직 분위기나 과중한 업무, 모호성이 많은 업무, 역할 갈등, 불안정한 신분, 열악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에서 오기도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과도한 책임감, 타인에 대한 돌봄에

치중해 자신을 돌보지 않는 성격적 특성, 애정 넘치는 과도한 정서적 관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한국인의 경우 유달리 신체적 소진이 뚜렷하게 발생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업무량이나 정서적 소진을 억압하는 경향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소진이 많을수록 자주 결근하거나 조직 충성심, 몰입도가 떨어져 조직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가짜 감정으로는 치유할 수 없다

정서적 소진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에 대한 마음의 적신호를 잘 알아차려야 한다. 상처 난 감정을 다루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응한다면 자신을 스스로 혹사하는 것이다. 상담심리학에서 진정성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이를 표현함으로써 역할과 정체성 획득의 이정표다. 또 진정성은 건강한 관계, 상호작용 기능의 핵심요소이며 심리적 안녕감과 중요한 상관이 있다. 진정성은 신뢰감을 주고 대인관계를 촉진해 심리적 소진을 처리하는 감정부담감을 줄여준다. 겉으로 괜찮은 척하는 표면 행동은 실제 감정을 억제하고 감정표현규범에 따라 타인이나 조직이 원하는 감정을 만들어 내 감정의 비진정성이라는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소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식을 취하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도 있으며, 산책을 하거나 요가를 할 수도 있다. 골고루 영양분을 취함으로써 돌봄을 느끼는 최적의 방법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도록 한다.

신경계 안정화를 위한 치유 공간 만들기

스트레스로 지친 마음과 신경계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상상 속 안전한 장소를 만든다. 평화롭고 차분한 느낌을 반영하는 외부적이고 실제적인 환경을 만듦으로써 안전함

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적한 바닷가나 휴양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따스한 음식을 준비하고 맞이해주던 거실이 될 수도 있으며, 배우자가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주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 당신 감각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모든 경험을 떠올려 보라.

주위 실제 공간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우면 내면의 평화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생활환경에서 치유 공간이라고 할 만한 장소를 선택하라. 집 안의 방을 선택하거나, 심지어 방 한 귀퉁이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상적으로 이 공간은 조용하고 평화로우며, 취약해진 당신을 위해 충분히 사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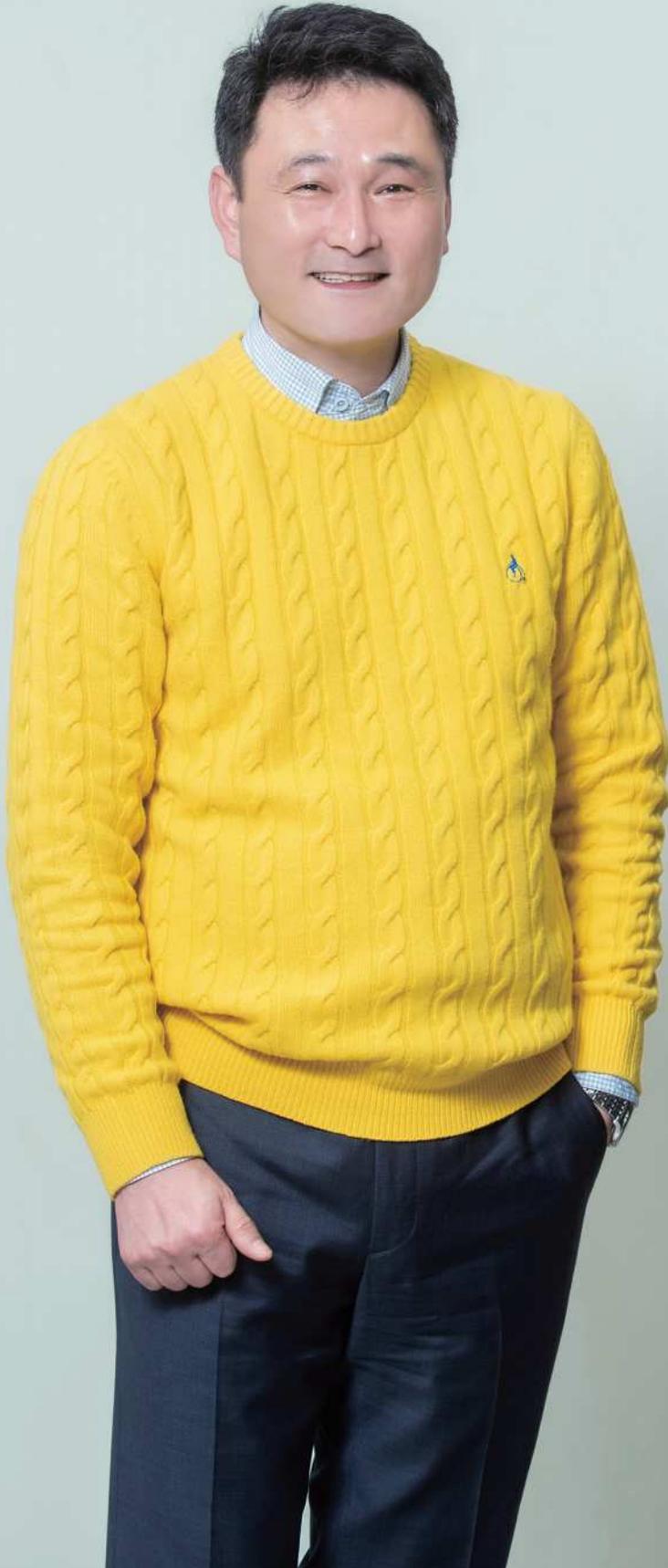
평화, 편안함, 안정감이라는 당신의 의도를 충족시키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생각해 보라. 적절한 인용문구, 이미지, 양초, 꽃, 돌과 같은 자연도 상관없다. 자신의 감각을 진정시키는 색깔이나 향기를 찾아보라. 당신의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해서 외부 세상의 분주함에서 한숨 돌릴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라.



TIP

일상에서 소진을 관리하는 팁

- ⊕ 매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을 위해 무언을 할 것인지 정하고 실천하며 회복력을 기른다.
- ⊕ 힘든 정서를 회피하거나 차단하지 말고 성공적으로 겪어냄으로써 고통에 대한 감내력을 기른다.
- ⊕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한다.
- ⊕ 건강한 이기심을 발휘해서 부당한 요청에는 “No”라고 말한다.
- ⊕ 지친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수용해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 위로받도록 한다.
- ⊕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역량을 기르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수석부회장 부동산학과 이귀숙 학우
21층학생회장 건축공간디자인학과 강재석 학우



학교와 학생 사이를 잇는 든든한 ‘가교’

Q. 어떤 이유로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됐나요?

강재석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봄 MT부터 여름 페스티벌, 가을 한마음 축제, 겨울 학위수여식까지 계절마다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었습니다. ‘사이버대학’은 홀로 학습한다는 편견을 깨고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하는 자리였죠. 그래서 학우들끼리 그리고 학우와 학교가 소통하는 자리가 줄어들었던 게 참 아쉬웠습니다. 서로 더 활발하게 소통하고, 학우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귀숙 저 역시 작년에 학과 모임이나 학교 행사가 축소되는 것을 지켜보며 아쉬움이 컸습니다. 1학년 때부터 총학생회 활동을 하며 학우들을 위해 더 많이 봉사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총학생회장님을 보필해서 함께 학우를 돕고 학교에도 도움 되는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도 했지만, 1년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Q. 회장, 부회장으로서 함께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강재석 학과와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을 맡아 활동해오며 각종 행사에서 이귀숙 부회장님을 자주 뵈었습니다. 모임이나 봉사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시는 ‘우수 활동가’이시죠. (웃음) 학우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맞아 ‘러닝메이트’가 되어 주십사 요청 드렸습니다.

이귀숙 봉사국장, 사무처장을 맡았던 이전과 달리 앞에서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라, 처음에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강재석 회장의 학우들을 위하는 마음과 열정이 진심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고, 학우들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싶다는 생각에 출마 제의를 흔쾌히 수락하게 됐습니다.

Q. 소통과 만남의 자리에 대해 강조하시는데, 학우들 간의 네트워킹이 왜 중요한가요?

이귀숙 1학년 학우, 특히 온라인 환경이 낯선 학우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과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지만, 막 입학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습방법과 그 과정을 공유하는 오프라인 모임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학교생활 동반자가 되는 거죠.

강재석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이 힘이 됐습니다. 직업도, 사는 지역도 다르고 학과마다 특성도 달라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학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통해야 하고, 그러려면 만남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Q. 앞으로의 활동 계획과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귀숙 작년과 올해 입학한 학우들은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전보다 적어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우들의 졸업까지 총학생회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유연하게 대응해 온라인 축제 등으로 학우들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재석 화상모임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지역 및 학과 활동을 통해 더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우들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학생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교수님은 더 알찬 강의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공유할 수 있도록 교수님과 학우가 함께 만나는 소통의 자리와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교와 학우 사이에서 균형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학과 이상훈 동문

배움을 향한 열망, 그 목마름을 채워주는 수준 높은 강의

Q. 서울사이버대학교에 편입하게 된 계기는?

창업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세무회계를 깊이 있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으로 편입을 결정했을 때 바로 떠오른 학교가 본교였습니다. 그만큼 인지도 높은 곳이었고, 학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본교를 선택했습니다.

Q. 3개의 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이유는?

좋은 강의가 많아서 욕심이 났습니다. 세무회계학과에 편입했지만, 부동산 분야에도 관심이 있어 부동산학과 특강을 몇 차례 들어보고 커리큘럼을 살펴봤는데 도움 되는 강의가 많아서 복수전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이왕 하는 김에 제가 종사하는 건설업과 관련된 건축공간디자인까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배움에 목말랐었고, 수준 높은 강의가 그 목마름을 충분히 채워줬습니다.

Q. 일과 학업의 병행과 온라인 학습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3개 전공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흔히 온라인 학습은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집중력 유지가 어렵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편견일 뿐, 중요한 건 공간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특히 본교는 ‘수강하게 되어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의 질이 높았고, 그러다 보니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Q. 수강한 전공이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됐나요?

현업 종사자들이 특강형식으로 진행한 강의가 인상 깊

었습니다. 관심 있거나 일로써 종사하는 분야에서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이 전하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는 ‘피부에 와닿는다’고 느껴질 만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지식이자, 절실히 필요로 했던 지식이었습니다.

Q. 누구보다 치열하게 학업에 매진했는데, 졸업 소감이 궁금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는데, 지금 다시 돌이켜 보면 ‘그때 더 열심히 할 걸’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졸업을 계기로 배움에는 끝이 없고 앞으로도 더 배워야 할 게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 2020년도 3개 전공 이수 졸업자

성명	학과	제2전공	제3전공
김정희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보건행정학과
문미신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안효순	사회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한국어문화학과
전인옥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서혜련	노인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이순정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사회복지전공
이혜진	아동복지전공	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구인혜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김연경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사회복지전공
황수미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성지현	가족코칭상담학과	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학과
이상훈	세무회계학과	부동산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윤종석	건축공간디자인학과	부동산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최고의 온라인 교육 인프라와 강의에 재입학을 결정했습니다”

휴먼서비스대학원 김형갑 원우



지난해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을 졸업한 김형갑 학우는 올해 다시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했다. 공중보건 의사로서 씬 없는 나날을 보내면서도 재입학을 결정할 만큼 본교는 그에게 특별하다.

공중보건 의사 김형갑 원우는 본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을 졸업하고 바로 이어 올해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에 입학했다. “상담및임상심리전공 과정이 너무 뜻깊었고, 복지학 관점에서 보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기 위해 이번에 다시 본교를 찾았습니다.”

처음 상담심리대학원에 입학해 경험한 본교는 역사가 깊고 학생 수가 많아 강의 질이 높을 것이라는 단순했던 예상 그 이상의 장점들로 넘쳐났고, 이 점이 연이은 재입학을 결심하게 했다. “본교가 최고의 온라인 교육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췄다고 느꼈습니다. 남다른 동기와 열정을 가진 여러 분야 전공자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상담심리에 접목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으로 지칠 때마다 원우 분들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셔서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본교 입학을 추천하냐고 넌지시 묻자 김형갑 원우는 ‘무조건’이라고 답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면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선입견도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중심에 본교의 수준 높은 강의를 있다. “사이버대학의 강의 질에 의문을 품는 일부 시선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높은 온라인 강의 이해도를 갖추신 교수님, 군더더기 없고 집중도 높은 본교의 강의는 커리큘럼 내에서의 정확한 내용 전달과 정제된 강의를 원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탕릉대학교 한국어학과 학과장 이계선 원우는 올해 3월 서울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에 입학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라 말하는 이계선 원우가 본교에서 시공간을 넘어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

인생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의 연속

상담심리대학원 이계선 원우

이계선 원우는 베트남 사회주의를 연구하기 위해 2004년 베트남으로 떠나 사회학 박사를 취득한 후 탕릉대학교에서 사회학 강의를 해오다 현재는 같은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 심리학회 및 심리학자 교류를 돕던 중 심리학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책과 인터넷을 통해 혼자 공부했지만,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이계선 원우는 심리학 공부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본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 입학에 결심했다. “국내 심리학과 중 최다 상담심리 전임교수진이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또한 각종 조사에서 본교가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른 것을 보고 주저 없이 입학에 결정했습니다.” 학문적 목표 달성만큼이나 본교 전공과정에도 기대가 크다. “본격적인 전공과정 시작 전 본교가 운영하는 K-MOOC ‘마음을 성장시키는 상담자 대화법’을 통해 강의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실무와 현장 중심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됩니다.”

사회복지행정학 석사, 사회학 박사, 한국어학과 학과장, 그리고 본교까지. 이계선 원우가 걸어온 길은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의 연속이었다. “도전은 언제나 걱정과 기대가 앞서기 마련입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시작했기에 끝도 있을 것입니다. 본교에서의 배움이 제 학생들과 베트남 사람들, 한국과 베트남의 다문화가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와 함께 맞이하는 ‘인생 2막’

휴먼서비스대학원 김선철 동문



서울사이버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김선철 동문은 정년 후 맞이할 새로운 인생을 본교와 함께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졸업 후에도 동문회장을 맡아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김선철 동문에게 본교는 ‘신중년’ 삶의 방향키가 됐다.

김선철 동문은 올해 말 정년을 앞두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서 30여 년 동안 심 없이 달려온 그였다. 그러나 김선철 동문에게 정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인생 제2막을 맞아 직업과 관련 있는 사회복지사를 꿈꾸게 됐고, 증명할 만한 전문 자격증을 갖추고 싶었습니다.”

본교를 통해 김선철 동문은 정년 후 삶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해나갔다. ‘인생이 달라질 것’이라는 막연했던 기대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등 하나둘 현실이 됐다. “장학금제도, 우수한 교수진, 훌륭한 강의 콘텐츠, 각종 분야의 특강, 자격증 모의시험, 대학과 대학원의 연계 등 직접 경험하며 느꼈던 본교의 장점이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김선철 동문은 현재 동문회장을 맡아 본교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대학원 과정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거나 이로 인해 애교심이 생기지 않았다면 말지 않았을 자리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고 보니 본교 휴먼서비스대학원은 시대를 앞선 대학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온라인의 장점에 직접적인 만남을 적절히 적용한 과정이 인상 깊었습니다.”

대학원 과정 동안 김선철 동문은 정년 후 제2의 삶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에 몰두했다. 그것은 그가 느끼는 시대적 사명이자 동 세대에 전하는 메시지였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신중년’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베이비붐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 홍윤기 동문은 본교에서의 석사 과정을 밑바탕으로 의대 박사 과정에까지 도전했다. 현재는 뇌 질환 관련 논문을 준비하며 생명과학원연구원으로 뇌 기전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심리학을 통해 뇌 연구로 가는 지름길을 찾다

상담심리대학원 홍윤기 동문

2014년 해병대 장교로 임관한 홍윤기 동문은 여유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방법을 찾던 중 본교를 만났다. “모든 일의 기본이자 시작과 끝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심리’를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대학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군인으로서 통학에 제한이 있었던 홍윤기 동문은 본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자신이 원하던 ‘임상심리’를 찾았고 망설임 없이 입학했다. 학부 전공자이거나 현장 경험자였던 동기들보다 초석이 약해 배움이 만만치는 않았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석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복무 일정으로 인해 결국 추가 학점 이수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박종선 교수님이 아낌없이 지도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홍윤기 동문은 이어 의대 박사 과정에 도전했다. 본교에서 먼저 경험한 비대면 수업 덕분에 박사 과정에도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전문회사 생명과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다. “제 전공이 우울증, 치매, 수면 등과 관련한 분야입니다. 올해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천연물질에 대한 뇌의 기전 연구로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홍윤기 동문은 자신의 삶에서 본교를 결코 빼놓을 수 없다고 말한다. “접근성과 높은 전문성으로 학생을 적극 지원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를 추천합니다. 상담심리대학원의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거장이 전하는 파란 희망

무수히 많은 푸른 빛 점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모였다가 저 멀리 심연으로 흩어진다.
끝 모를 광활한 기개와 태초부터 이어져 온
신비로운 기운이 어우러진 장엄한 광경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창'이다.
별들로 가득한 푸른 우주를 형상화한
김환기의 대표작 <우주>는
'환기 블루'로 일컬어지는
심오하고 매혹적인 푸른색이 가득하다.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이 시대를 넘어
작품으로 우리에게 말한다.
'코로나 블루'로 얼룩진 오늘을 말끔히
씻어내고 투명하고 깊은 저 푸른 희망찬
'우주'를 향해 나아가자고.

김환기 (1913~1974)

타고난 예술적 기질과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아방가르드와 추상미술의 선봉에 선 20세기 대한민국의 대표 화가다. 민족정서와 동양철학을 서구의 모더니즘에 접목한 독보적인 예술세계는 선명한 민족정취를 세계인이 공감하는 정제된 화면과 색감으로 구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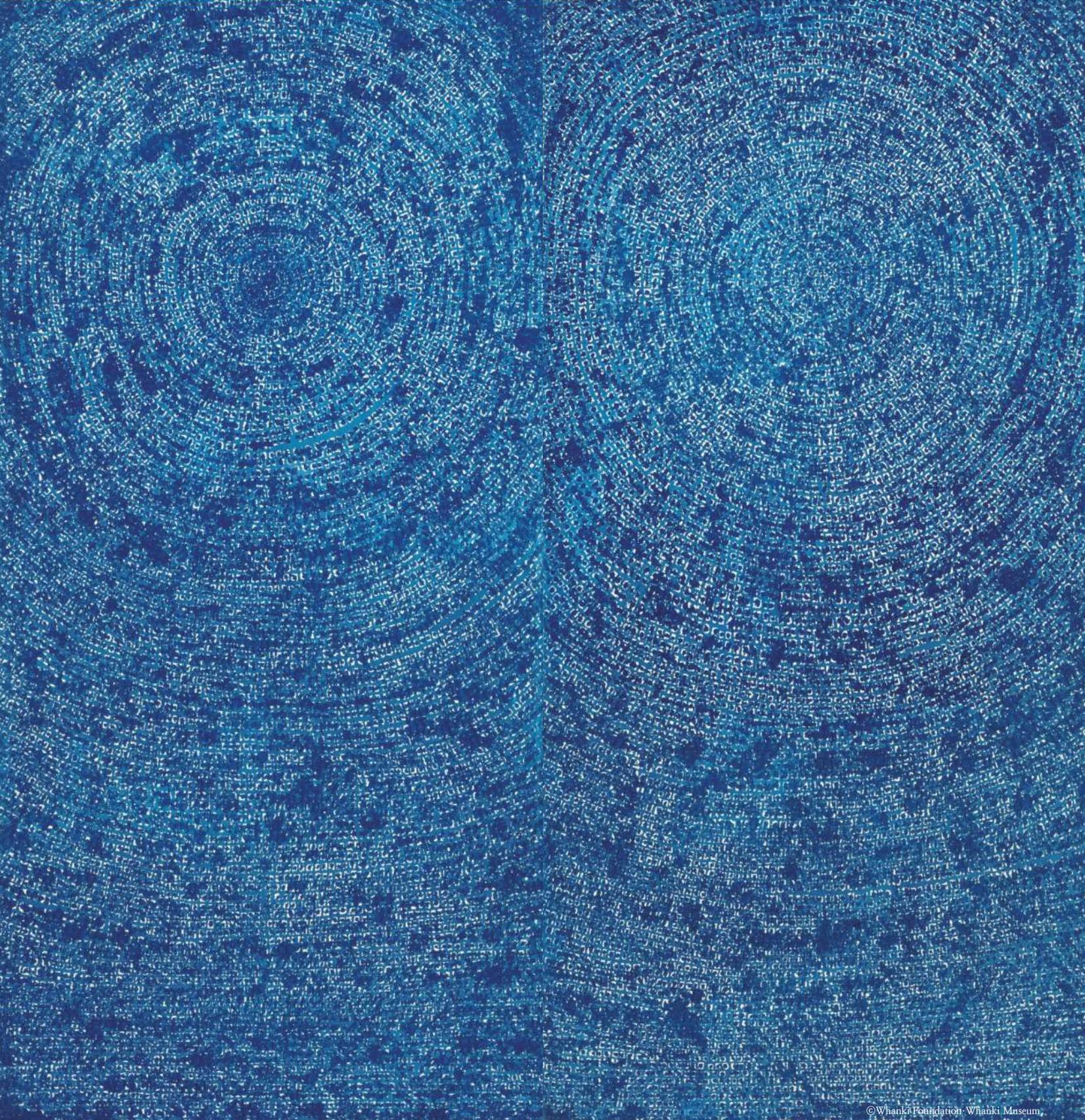
위 작품부터

<산월>, 1962, 캔버스에 유채, 132x163cm

<사슴>, 1958, 캔버스에 유채, 65x81cm

<달밤의 섬>, 1959, 캔버스에 유채, 95x146cm

〈우주, Universe 5-IV-71 #200〉, 1971, 코튼에 유채, 254x254cm



특강 1

강북구청 주최 다산연구소 후원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강북구청 주최로 4월 9일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다산 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이 강연자로 나서 강진 유배생활과 학문적 업적, 목민심서를 통한 가르침 등 다산 정약용의 생애를 아우르며 그의 사상에 대해 강연했다. 박석무 이사장은 제13·14대 국회의원, 5·18기념재단 이사장, 한국고전번역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다산연구소 이사장과 우석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아 다산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정약용의 생애는 네 단계의 시기로 구분된다. 특히 40세부터 57세까지의 강진 유배기간은 방대한 양의 책을 집필한 가장 핵심적인 시기로, 당시 정약용은 “하늘이 나에게 본격적으로 학문 연구에 몰두할 기회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

를 주었다”라며 춥고 배고픈 유배생활에도 굶하지 않고 학문적 대업을 완성했다. 또한, 정약용은 유배시절 읍내의 신분이 낮은 많은 제자를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박석무 이사장은 <목민심서>의 본론 중에서 울기, 봉공, 애민 등 세 편을 예로 들며 “항상 청렴하고, 사리에 합당한 법은 조건 없이 지켜야 하나 문제가 있는 법은 융통성 있게 지키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무한한 애정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달력 강화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



스피치 강사 홍재경 아나운서



서울사이버대학교는 4월 23일 본교 차이콥스키홀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달력 강화 훈련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JTBC 기상 캐스터, SBS 아나운서 등을 거쳐 현재 스피치 강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홍재경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서 전달력을 높이는 발성과 호흡법,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부분 생활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상대방과의 소통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말할 때 숨이 차거나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입 모양을 보면서 발음을 유추할 수도 없어 상대방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홍재경 아나운서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말을 하고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설명했다.

홍재경 아나운서는 “주로 가수나 연기자 등 발성과 호흡이 중요한 사람들이 익히는 복식호흡을 일반인들도 연습하면 더욱 전달력을 높을 수 있다”라며, “호흡은 안정감 있는 발성과도 직결된다”라고 호흡과 발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정적인 호흡을 바탕으로 발성하기 위해서는 폐활량을 늘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며 일상생활에서 따라 할 수 있는 폐활량 훈련법, 복식호흡법 등을 직접 선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설명했다.

2021년 신년 교직원 표창 수여

**열정과 헌신을 통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표창패 수여**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1월 4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우수 교직원 및 부처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이은주 전임 총장은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헌신을 통해 본교 발전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표창패를 수여했다. 우수 교직원은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와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 정보지원센터 안병윤 팀장, 입학처 홍승현 팀장과 김준오 계장, 우수 부처는 교무처, 기획조정실, 입학처, 총무처가 각각 선정됐다. 이와 함께 대학원교학팀 김현미 주임이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컴퓨터공학과 이성태 교수가 <온라인 강의 콘텐츠 쉽게 만들기>를 발간해 이러닝 콘텐츠를 교수자가 직접 제작 및 제공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이러닝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사이버대학 발전 부문 유공자 교육부 표창을 받았다.



1



2



3

1. 상담심리학과 김환 교수와 이은주 전임 총장, 사회복지전공 이문숙 교수
2. 입학처 홍승현 팀장과 김준오 계장, 이은주 전임 총장, 정보지원센터 안병윤 팀장
3. 우수 부처로 선정된 교무처, 기획조정실, 총무처 관계자

2021 소비자 선정 사이버대학 최고의 브랜드 대상



구국모 대외협력부총장(왼쪽)과 강인 총장(오른쪽)

서울사이버대학교가 소비자들이 선정한 최고의 사이버대학 브랜드로 선정됐다. 중앙일보 포브스코리아 주관으로 3월 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열린 ‘2021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본교가 사이버대학 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JTBC에서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산업 전반에 걸쳐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가치를 인정받는 상품 및 기업 브랜드를 평가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이드를 제공하고 산업경제 발전과 국가 브랜드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최됐다.

본교는 지난해에도 코리아헤럴드 선정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베스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 한국소비자평가 최고의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사이버대학 부문 정상에 올랐다. 강인 총장은 “이번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수상은 대한민국 온라인 교육을 이끌어 온



본교의 무한한 발전을 위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학 교육의 미래를 개척하고, 재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SCU 최고의 작가를 찾아라’ 공모전 시상식 개최



강인 총장과 정혁 학우

군인 학생과 함께하는 제1회 ‘SCU 최고의 작가를 찾아라’ 공모전의 시상식이 3월 10일 개최됐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군교육지원처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군재학생 및 졸업생과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에세이와 슬로건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해 12월부터 2월 16일까지 공모작 모집 후 두 차례 심사를 거친 결과 에세이 부문에서는 정혁 학우, 슬로건 부문에서는 문준호 동문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정혁 학우는 “로고송 가사처럼 본교를 다닌 후 인생이 달라졌다”라며, “내가 달라지니 그 영향이 가족에게도 미쳐 가족도 달라지고, 부대 내 동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 본교를 다닌 후 나 자신과 주변인 모두의 인생이 달라졌다”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에세이 부문은 대상 1명 (상장, 100만 원), 최우수상 3명 (상장, 30만 원), 우수상 9명 (상장, 20만 원)을 선정했으며, 슬로건 부문은 대상 1명 (상장, 20만 원), 최우수상 3명 (상장, 10만 원), 우수상 5명 (음료쿠폰)을 선정했

다. 우수 작품은 본교 군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mil.isc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교육지원센터 이정원 부총장은 “본교는 군 친화 대학으로서 최적화된 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모전을 비롯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인 총장과 공모전 관계자들

네이버 인증서 서비스 사업 업무협약



네이버와 지난해 12월 3일 인증서, 전자문서, 학생증 서비스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교 재학생들은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으로 수강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상반기부터 네이버 앱에서 모바일 학생증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 및 다문화 교육 상호협력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1월 27일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한국어·다문화 교육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협력, 교육, 실습, 수련, 인턴십 등 수행 시 인적·물적 자원 상호교류 및 기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탭프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탭프라와 1월 21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활성화 등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 미용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서경대학교 미용예술대학과 지난해 11월 19일 미용교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문학번역원 전문 번역가 양성 업무협약



한국문학번역원과 지난해 10월 28일 전문 번역가 양성 및 위탁 교육에 관한 산학협력을 체결했다.

육군공병학교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역량 강화 업무협약



육군공병학교와 3월 23일 인도주의적 지뢰제거 거행동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협력을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영애 전 부총장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여성학 박사
- 2010년~2011년: 한국여성학회 회장
- 2017년~2019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울사이버대학교 대학원 원장, 부총장
- 2020년~ :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사이버대학교 정영애 전 부총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했다. 정영애 전 부총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여성학 전문가로,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후 동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와 여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본교에서는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교무처장, 대학원장,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애 전 부총장은 여성 및 양성평등문제를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했을 뿐 아니라 한국여성학회 학회장, 한국여성재단 이사 등을 지내며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해결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6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여성정책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비서관 등을 맡으며 풍부한 정책적 경험과 전문성, 소통능력, 리더십을 겸비해 여가부 업무에 최적화된 장관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정영애 전 부총장은 “여가부는 업무 내용에 따라 그 규모가 커지거나 줄었지만 성 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기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라며, “지금까지 성 평등 주무부처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성주류화를 위한 틀을 마련했고, 양성평등위원회와 8개 부처 양성평등 정책 전담부서 운영을 통해 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지역별 신·편입생 ‘온택트’ 환영회 개최

강원영서지역학생회 신·편입생환영식 동영상 : www.youtube.com/watch?v=ELQNJko7P0o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난 3월 온라인으로 지역별 신·편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인부천지역학생회, 호남지역학생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Meet’을 통해 환영회를 열고

강의 안내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강원영서지역학생회는 유튜브를 통해 환영회를 개최하고 전공에 대한 토크쇼 등을 진행했다.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대학교 브랜드 평판 1위 서울사이버대학교

브랜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브랜드 평판지수
서울사이버대학교	1,191,640	397,300	407,079	363,042	2,359,061
한양사이버대학교	723,059	110,176	606,145	443,279	1,882,659
경희사이버대학교	812,371	227,028	375,765	338,050	1,753,214
서울디지털대학교	639,864	63,434	668,773	370,934	1,743,006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555,446	160,255	583,778	372,249	1,671,729

*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대학교 브랜드 평판 상위 5개교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실시한 3월 사이버대학교 브랜드 평판 빅데이터 분석에서 서울사이버대학교가 1위에 올랐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됐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 참여와 소

통량, 소셜네트워크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 본교는 브랜드 평판지수 2,359,061로 분석됐으며, 지난 2020년 8월 브랜드 평판지수 910,858과 비교하면 158.99% 상승했다.

연극인 박정자, 명예박사 학위 수여



연극인 박정자와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지난해 10월 28일 서울사이버대학교 차이콥스키홀에서 원로 연극배우 박정자의 카자흐스탄 국립예술대학교 (Kazakh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박정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연극 분야 발전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바킷 듀센바예프 주한 카자흐스탄대사로부터 연극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수여식에는 본교 이은주 전임 총장을 비롯해 주한 카자흐스탄대사, 부산국제영화제 김동호 전 위원장, 예술의 전당 손숙 이사장을 비롯한 연극인 선후배들이 참석했다.

박정자는 1962년 연극 <페드라>로 데뷔해 현재까지 200여편의 연극과 9,000일 이상 공연이라는 대기록을 보유하며 한국 연극에 큰 업적을 남겼다. 예술의 전당 이사,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서울연극제 최우수주연상(1991), 제6회 이해랑 연극상(1996), 제4회 아름다운예술인상(2014), 제7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로상(2020) 등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또한,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복지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다방면으로 이바지 해왔다. 관악문화재단 이사장 취임 후에는 관내 생활문화공간 조성 등 지역 문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예술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박정자는 “여든이 가까운 나이에 주어진 감격스러운 명예박사 학위는 삶의 터와 인간의 감성, 문화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전언 같다”라며, “이 명예와 과분함을 잊지 않고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시대에 많은 분이 예술로 힘을 얻고 청년예술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정자는 5월 1일부터 23일까지 3주 동안 KT&G 상상마당 대치아트홀에서 공연되는 연극 <해롤드와 모드>에 출연한다. <해롤드와 모드>는 작가 콜린 히긴스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동명 영화(1971년)로 먼저 알려진 후 연극과 뮤지컬로 세계 각국에서 재생산된 스테디셀러다.

성악과 ‘우리들의 노래’ 음악회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가 개설 3주년을 맞아 지난해 11월 20일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 ‘우리들의 노래’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공연이 열렸으며, 이규도 석좌교수와 이승현 학과장을 비롯한 10명의 실기 교수의 지도 아래 61명의 성악과 학생이 높은 수준의 성악공연을 선보였다.

국제협력·북한전공 입학 설명회



국제협력·북한전공 이지영 교수

서울사이버대학교 국제협력·북한전공이 지난해 12월 12일 입학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구순 교수와 이지영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학습 로드맵 등을 설명했다. 국제협력·북한전공은 개발도상국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디지털 시대의 K-Pop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 실용음악과는 지난해 11월 28일 유튜브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K-Pop’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국내 최고 작곡가이자 본교 실용음악과 교수인 김형석 교수가 재학생과 대중음악에 관심 있는 이들과 소통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변화 방향에 대해 강연했다.

장은미 방송작가 ‘지식나눔’ 특강



서울사이버대학교는 지식나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1월 22일 장은미 방송작가의 ‘당신이 방송작가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특강을 유튜브에서 진행했다. 장은미 작가는 KBS 미니시리즈 <드림하이2>, KCTV 12부작 다큐멘터리 <탐라오디세이 제주 올레> 등 다수 작품에 참여했다.

교수 동정

윤소영 교수 피아노과

2020년 10월, 수원 SK 아트리움 '전원경의 미술관 옆 음악당 Season V' 연주 참여
 2020년 11월,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 '위솔로이스츠 22회 정기 연주회' 연주 참여
 2020년 12월, 예술의 전당 IBK Hall '서울사이버대학교 실내악 연주' 연주 참여
 2020년 12월, 예술의 전당 IBK Hall '크리스마스 콘서트 위솔로이스츠' 연주 참여
 2020년 12월, 예술의 전당 IBK Hall 'PLUS Chamber Group 송년 음악회' 연주 참여

김동환 교수 부동산학과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1인 가구 주택 규모 및 계약 기간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 소재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 『부동산산업연구』 「기업도시 선정기준 중요도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게재
 2020년 12월, 한국주거환경학회 『주거환경』 「우량점포를 위한 소매기업의 추월 전략, -한국 소매시장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정책연구』 「아파트 리모델링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게재

구희정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0년 11월,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유아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평가 및 리뷰점수에 따른 차이분석」 게재
 2020년 12월, IJAHS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ies*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s' needs for gerocounseling" 게재

채정민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0년 12월,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20년 (사)아시아.유럽미래학회 추계학술 발표대회' 「한민족 통일을 위한 브랜드화 방향」 발표
 2020년 12월,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2020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 「한민족 통일을 위한 심리학적 개선 방향」 발표

심선경 교수 사회복지전공

2020년 10월, 동아시아일본학회 『일본문화연구』 「일본 개호서비스 평가에 관한 연구: 그룹 홈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1월, 동아시아일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 동북아시아문화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일본의 지역밀착형 서비스 평가제도의 특징」 발표
 2020년 12월,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게재

김윤나 교수 청소년복지전공

2020년 11월, 한국시민청소년학회·글로벌청소년학회 『연합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 발표
 2020년 11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실천경험: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21』 「서울시 지역사회복지관 기관장의 기관운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게재
 2020년 12월, G'L 학교밖청소년연구소 「노원구 비행청소년 실태조사 및 안전망 강화방안 연구」 발간

권구순 교수 국제협력·북한전공

2020년 11월, 서울시인재개발원 '2020 SHRDC On-line Expert Seminar on International Training' "Beyond Challenges of COVID-19: The Case Study of KOICA Global On-line Training" 발표
 2020년 11월,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동계학술대회' 「SDGs 체제하에 전환적 대북 인도적 지원방안」, 「COVID-19:인도적 지원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발표

김현진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0년 12월,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적응성의 관계: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통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게재

전광호 교수 경영학과

2020년 10월, 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연구』 「스트레스, 소진,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이버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사)한국물류학회 「2020년도 동계공동학술발표대회 및 제21회 물류정책포럼」 「영업사원의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에 관한 연구」 발표
 2020년 12월, 한국유통경영학회 『유통경영학회지』 「영업사원의 변화지향적 조직시민행동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게재

서영수 교수 금융보험학과

2020년 8월, 금융소비자학회 『금융소비자연구』 「보험소비자의 낙관주의 성향과 보험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보험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게재
 2020년 10월, 한국자료분석학회 『자료분석』 「SAMC 알고리즘을 이용한 미디어 패널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게재
 2020년 11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위험의 미디어노출과 보험회사 신뢰도가 보험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30대 유병자군을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한국의 보험회사 신뢰도와 보험서비스 만족도가 보험구매에 미치는 실증연구:30대 위험군을 중심으로」 게재

임세희 교수 아동복지전공

2020년 10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 4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가정 내 아동을 중심으로」 발표
 2020년 12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의 미래 집에서 시작합니다-경기북부 비주택 거주 아동가구 실태와 주거상향 이동경험」 발간
 2020년 12월,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사회복지연구』 「주거개선이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미치는 영향」 게재

김현아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0년 11월, 한국청소년상담개발원 『청소년 상담연구』 「중국 조선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화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정서표현 양 가성의 매개효과」 게재

2020년 11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현대사회와 다문화』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된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게재

2020년 12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통일부&국립정신건강센터 ‘언택트 시대, 탈북민의 정신건강’ 「언택트 시대 탈북민의 마음 이해」 발표

2021년 1월, 학지사 「재난 대비 안전심리학, 출간(공역)」

이향아 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2020년 11월, 한국콘텐츠학회 ‘ICCC2020 International Digital Design Invitation Exhibition’ <Intelligent content> 전시

2020년 11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위한 구청 소식지 (Newsletter)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강북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사단법인 한국시각디자인협회 『2020 제49회 KDC국제디자인초대 교류전』 <꿈을 꾸다> 전시

이성태 교수 컴퓨터공학과

2020년 11월, IIBC ‘ISAAC 2020’ “A study about comparative of camera directing and effects in general 3Dgraphic animation and VR animation” 발표

2020년 11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MOOC의 교육이론에 따른 인공지능 윤리 강의 콘텐츠 설계」 게재

2020년 12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sychotherapy Contents Using Unity3D” 게재

이완형 교수 글로벌무역물류학과

2020년 9월, 한국유통경영학회 및 한국물류학회 『2020 한국유통경영학회 추계공동학술발표대회』 「언택트시대 유통 물류 비즈니스의 메가 체인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발표

2020년 10월, EATA, NABEA, ATA, KITRI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Research Symposium’ 「포스트 COVID-19시대 기업의 지속가능 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발표

2021년 1월, IAGBT and KITRI ‘The 25th IAGBT-KITRI Biannual Conference and Research Symposium’ “Next Normal and New Paradigm of Business management” 발표

정현주 교수 사회복지전공

2020년 11월, (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2020년 추계공동학술대회’ “A Qualitative Study of the Participation Experience with Mental Disabilities in Recognition Improvement Program: Focusing on UCC Dubbing Project” 발표

2020년 11월,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청소년시설환경』 「자립지원 서비스가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역량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립의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동 게재

김영민 교수 글로벌무역물류학과

2020년 10월,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 연구』 「e-Learning에서 교수자의 역할, 학습동기 유발 및 학업지속 의향의 관계」 게재

2020년 12월,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물류기업의 물류 4.0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 연구」 게재

2020년 12월,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물류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CSR 및 운영성과의 관계」 게재

권금주 교수 노인복지전공

2020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교육 교안 개발」 발간

김미주 교수 보건행정학과

2020년 11월,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근력이 이상 지질혈증에 미치는 영향」 게재

이승현 교수 성악과

2020년 10월, 영산아트홀 ‘코로나 19 극복 희망 콘서트’ 참여

2020년 10월, 영산아트홀 ‘opera gala concert’ 참여

노건태 교수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2020년 11월, 한국정보처리학회 『정보처리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공학』 「차세대대학습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접근제어 감사시스템」 게재

2020년 12월, 한국정보보호학회 『정보보호학회논문지』 「GDPR 준수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접근제어 시스템」 게재

이서영 교수 사회복지전공

2020년 10월, 동아시아일본학회 『동아시아일본학회추계학술대회』 「일본의 지역밀착형서비스에 관한 연구」 발표

2020년 12월,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직관리 경험에 관한 연구」 게재

정상원 교수 복지경영전공

2020년 11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사회복지사가 인식하는 조직 맥락과 고객지향성의 관계에서 맥락적 양면성으로서 혁신행동과 맥락적성과의 이중매개 효과」 게재

김요완 교수 가족코칭상담학과

2020년 10월, (사)한국비즈니스학회 『비즈니스 연구』 「스트레스, 소진,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사이버대학 재학생을 중심으로」 공동 게재

박태정 교수 복지경영전공

2020년 12월, 공동체 「사회복지역사」 출간

교수 동정

박찬수 교수 전기전자공학과

2020년 12월, 대한기계학회 '대한기계학회 학술대회' 「복합센서기반의 차량 사고 인식 솔루션 개발」 발표

이우경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0년 12월, IJAHSS *International Journal of Art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Studies* "Korean cyber university students' needs for gerocounseling" 게재

박기훈 교수 노인복지전공

2020년 10월, (사)국제 e-비즈니스학회 '국제 e-비즈니스학회 추계학술대회' 「일본의 온라인 시니어비즈니스 고찰」 발표

2020년 10월, (사)국제 e-비즈니스학회 *The e-Business Studies* 「e-learning에서 교수자의 역할, 학습동기 유발 및 학업지속 의향의 관계」 게재

박형원 교수 아동복지전공

2020년 11월,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최고관리자의 리더십 경험」 게재

2020년 12월,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AIDS관련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과 문헌고찰」 게재

이의신 교수 문화예술경영학과

2020년 10월, 한국콘텐츠진흥원, HJ컬처, YES24 STAGE <데뷔를 대비하라> 제작

2020년 11월,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미래사회』 「뉴노멀 시대의 공연아트마켓 활성방안 연구」 게재

홍선관 교수 건축공간디자인학과

2020년 10월, 매일경제신문사 「초규제 시대, 부동산투자의 정석」 출간

2020년 12월,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한국컴퓨터게임학회지』 「A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cases and the latest trends in the virtual world」 게재

전호진 교수 세무회계학과

2020년 12월, 한국무역연구원 『무역연구』 「물류기업의 윤리경영 실천, CSR 및 운영성과의 관계」 게재

허묘연 교수 상담심리학과

2020년 12월, 차세대컨버전스 정보서비스학회 『차세대컨버전스 정보서비스기술논문지』 「온라인 수업이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에 미치는 영향」 게재

차명희 교수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2020년 10월,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디지털 아트 초대전' <Space Design>, <Smart City> 전시

2020년 12월, 차세대컨버전스정보서비스학회 『디지털예술공학멀티미디어논문지』 "Smart Commerce Case Study Us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AI, VR" 게재

김용희 교수 웹·문예창작학과

2020년 11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연대 '문학공간' 통권 372호 <사색예찬.39> 연재

2021년 1월, 도서출판 울림 『길위에서』, 『시따라 길따라』 출간

허재현 교수 보건행정학과

2020년 11월,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2020 The Korean Nutrition Society International Conference(Virtual)' "Associations between healthy dietary habits and hypertension in Korean adults:based on 2018 KNHANES" 발표

2020년 11월,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국내 성인의 건강증진행동 병행수준과 비만」 게재

나정혜 교수 피아노과

2020년 12월, 예술의전당 IBK홀 '서울사이버대학교 피아노과 교수음악회' 연주 참여

2020년 12월, 엘림아트홀 '임재홍 바이올린 독주회' 연주 참여

김연주 교수 피아노과

2020년 10월, 영산아트홀 '김연주 파이프로그간 독주회' 개최

신지연 교수 피아노과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서울사이버대학교 피아노과 교수음악회' 연주 참여

이희연 교수 사회복지전공

2020년 11월, 한국웰니스학회 『한국웰니스학회지』 「비영리 사회복지조직 최고관리자의 리더십 경험」 게재

2020년 11월,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단기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사례관리 실천경험: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게재

2020년 12월, 한국소년정책학회 『소년보호연구』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삶의 변화와 소년보호정책적 함의」 게재

2020년 11월,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20년도 한국디지털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A qualitative study o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experience of the head of an agency? Focused on community welfare center in Seoul" 발표

여정운 교수 음악치료학과

2020년 10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치료학회 '한국음악치료학회 제25차정기학술대회'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 음악치료사의 역할 및 활동 방향:음악치료프로젝트 분야」, 「비실시간 온라인 음악치료 경험」 발표

2020년 11월,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학술대회' 「영상 및 소셜 플랫폼을 활용한 언택트 음악치료의 효과성 및 적용방안 연구」 발표



https://www.iscu.ac.kr/01_aboutcollege/06_07_fonts.asp

본 지면은 서울사이버대학체로 디자인되었습니다. QR코드 스캔 후 홈페이지에서 Windows와 MAC용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전용 서체

디자인출원 제30-2021-0006332호, 제30-2021-0006333호, 제30-2021-0006643호
 저작권등록 제C-2021-010237호

서울사이버대학체는 본교 로고와 심볼을 모티브로 개발했습니다. Light, Medium, Bold 각 한글 1만 1,172자, 영문 및 숫자 94자, 특수문자 986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가독성에 초점을 맞춘 고딕체로 제목과 본문에서 활용도가 높은 디자인입니다. 딱 찬 네모꼴로 단단하면서 시원스럽게 표현했고,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담았습니다.

'ㅇ', 'ㅎ' 가로획과 분리 정원에 가까운 'ㅇ'으로 디자인

힘의 방향성이 느껴지는 사선 직선과 곡선의 부드러운 조화 적정 장평과 자간

서울사이버대학체 L -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서울사이버대학체 M -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서울사이버대학체 B - 서울사이버대학교 SEOUL CYBER UNIVERSITY

저작권

- » 서울사이버대학체의 지적재산권은 서울사이버대학교에 있습니다.
- » 서울사이버대학체는 개인 및 기업 사용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 » 서울사이버대학체를 유료로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 사용을 금지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를 다니고

내 인생이 달라졌다

- 모바일 강의수강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 학생 맞춤형 1년 4학기제로 졸업은 빠르고
- 커리어코칭 프로그램으로 취업할 곳은 많고
- 사이버대학 최대 교내장학금으로 든든하고

(국가장학금 외, 2020 공시기준)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정가 : 5,000원

학 부 : 신입생 · 편입생 모집 ☎ 02-944-5000

대학원 : 사회복지 석사과정 모집 ☎ 02-944-5500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복지경영전공
아동복지전공
청소년복지전공

심리·상담대학

상담심리학과
가족코칭상담학과
군경상담학과
특수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인재학부

소프트웨어융합전공
국제협력·북한전공
직업·진로상담전공
국방융합관리전공
온라인커머스전공
로봇융합전공 (신설)
안전관리전공 (신설)
1인방송전공 (신설)

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피아노과
성악과
실용음악과
음악치료학과

사회과학대학

부동산학과
법무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한국어문화학과

융합경영대학

경영학과
글로벌무역물류학과
금융보험학과
세무회계학과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빅데이터·정보보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디자인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건축공간디자인학과
웹·문예창작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신설)

휴먼서비스대학원

사회복지전공

상담심리대학원

상담및임상심리전공